



◇오랜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벽화와 불상으로 전세계 불자들의 참배 대상이 되어온 아잔타 석굴이 인도 정부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수된다.

아잔타·엘로라 석굴사원 개발

40억 루피 투입 교통시설 확충·불상벽화 보존·보수

인도의 유명한 불교 유적 중 하나인 아잔타와 엘로라의 석굴 사원을 보존하고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아잔타-엘로라 개발 계획에는 총 40억 루피(1천1백억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인도의 불교 전문가인 '빔 빠프리카' 최근호에 의하면 아잔타-엘로라 석굴 개발계획은 일본의 국제협력은행(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약 35억 루피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인도 관광부의 관광 개발계획의 하나로 선정되어 다방면에 걸친 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부분은 교통 편의시설의 확충이다. 인근 아우랑가바드 공항의 보수는 물론이고, 대형 비행기도 착륙할 수 있도록 할주도로 확장할 예정이다.

석굴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작업도 진행된다. 아잔타와 엘로라 석굴

내에는 고대 시대의 불상과 벽화 등 수많은 불교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는데, 인도 고고학 연구회에 의뢰하여 보존 관리와 일부 파손된 문화재에 대한 보수를 맡길 계획이다.

자그모한 인도 관광부 장관은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이라는 모토로 이번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다. 석굴 지역을 편리하게 개발하되,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했다. 특히 두 지역의 석굴군 주변의 땅 740헥타르(약 220만평)를 훼손시키지 않고 녹지로 보존하기로 했다.

아잔타와 엘로라의 석굴군은 기원전 3세기 경까지, 아잔타 석굴은 기원전 약 3세기 경부터 당시 수형승들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하여 기원후 6-7세기 경까지도 계속 조성되고 보수가 계속되었다. 아잔타는 현재 알려진 29개의 석굴 모두 불교석굴이며, 인근의 엘로라는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 석굴 사원 34개가 함

께 있다. 두 석굴군은 뛰어난 역사성과 예술성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도 부나= 이지는 통신원



◇4월 20일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 앞에서 제막된 '김지장 스님 차시비' 앞에서 주지 성부스님이 헌다의식을 봉행하고 있다.

한중수교 10주년 및 김지장스님 탄신 1300주년을 맞아, 신라왕족 출신으로 중국에 들어가 지장보살의 호신이 된 김지장선사(659-794)를 현창하는 행사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한국문화협회와 가천문화재단, 불교춘추사는 중국 안휘성불교문화연토회와 공동으로 4월 20일 중국

을 계기로 중한 우의의 꽃을 새롭게 꽃피우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와 함께 중국 '안취 구화산불교문화연토회' 및 구화산불교협회와 한국 불교춘추사는 오는 9월 5일 구화산 경내에서 '한중 김지장 국제학술 및 차문화 연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지장 스님 탄생 1300돌 기념 중국 구화산서 茶詩碑 제막식

구화산 육신보전 앞에서 2m 높이의 김지장스님 차시비 제막식과 한중 다도표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차시비 제막식에서 구화산 육신보전 주지 성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7세기경 지장스님이 구화산에 75년간 주석한 이래 구화산과 한국불교는 오랜 우의를 맺어왔다"면서 "이번 지장스님 차시비 제막식

을 계기로 중한 우의의 꽃을 새롭게 꽃피우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와 함께 중국 '안취 구화산불교문화연토회' 및 구화산불교협회와 한국 불교춘추사는 오는 9월 5일 구화산 경내에서 '한중 김지장 국제학술 및 차문화 연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달라이 라마 활동 재개

건강회복, 이달중 호주·뉴질랜드 방문



올 초 가벼운 위장장애로 인해 인도 보드가야의 법회를 연기한 후 수개월간 휴식을 취해왔던 달라이 라마(사진)가 건강을 회복하고 활발한 해외 순방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달중에 5일간의 일정으로 뉴질랜드 티베트 관련 단

체와 호주 자유당 등의 초청으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달라이 라마는 5월 27일 웰링턴에서 열리는 대중포럼에서 연설하고, 5월 29일에는 넬슨에서 설법회와 고등학교에서의 연설회를 갖는다. 5월 30일에는 제2회 '세계 불교청년포럼'(IBYF)에 참석하며, 오스트리아의 이든공원에서 대중연설을 한다.

달라이 라마는 7월에는 크로아티

International Tibet Support Network(국제 티베트 지원연대, 이하 ITSN)는 최근 7년전 중국에 의해 납치된 11대 판첸 라마(사진)의 13번째 생일(4월 25일)을 맞아, 내년 4월까지 진행될 '판첸 라마 구출 프로젝트' 제안서를 전세계 ITSN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ITSN(www.tibet.org/itsn)은 이 제안서에서 "중국이 판첸 라마를 납치함으로써 환생한 종교 지도자를 찾는 티베트의 전통을 훼손했으며, 이 같은 행위는 앞으로도 달라이 라마

판첸라마 구출 캠페인 벌여

국제 티베트 지원연대의 환생에 관여하겠다는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ITSN은 또 '어떠한 어린이도 사생활과 가족, 집, 동료들과의 관계를 함으로써 환생한 종교 지도자를 찾는 티베트의 전통을 훼손했으며, 이 같은 행위는 앞으로도 달라이 라마

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아동 권리 헌장'을 인용, 중국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ITSN은 이번 캠페인에서 아동권리위원회나 국제적십자, 고등인권 판무관 등의 단체장이 독립적으로 판첸라마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해, 중국 당국이 판첸 라마의 안전을 증명하도록 압력을 넣을 계획이다.



日 국제불광회 9차 세계총회

각국서 3천여명 참석, 성운스님 '4대 발심' 제안

국제불광회 세계총회 제9차 대회가 4월 30일 일본 동경 국제노동회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제불광회 총회장이 성운스님과 부회장인 오백웅(중국국민당 부주석) 거사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3천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발심과 발전'을 주제로 한 이번 총회에서 성운스님은 주제발표를

통해 4가지의 발심과 발전을 제시했다. 성운스님이 제시한 4대 발심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발자비심, 정과 혜를 함께 닦는 발등상심(發等上心), 나와 타인을 하나로 보는 발동체심, 자제원만한 발보리심이다. 또한 4대 발전은 인간성의 진선미, 세간의 복과 지혜, 사람들간의 화목과 공경, 미래의 생불과 합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中 아미산 낙산대불 보수

중국 사천성(四川省) 낙산시(樂山市) 정부는 4월 26일 심천(深)에서 '아미산-낙산대불 세계유산보호위원회' 보고회를 갖고, 5월부터 3년간 1억8천원(150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보수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중 낙산대불 최대 보수공사는 오는 9월 열리는 낙산 제4차 국제 관광 대포럼 및 아미산-낙산대불 세계유산보호절 전에 준공된다.

• Daily Wisdom: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게 하는 책이 나왔다. Wisdom 출판사는 최근 하루에 한 구절씩 불교의 가르침을 읽을 수 있도록 365개의 구절을 뽑아 <Daily Wisdom>(Wisdom Publications)로 펴냈다. Wisdom 출판사에서 출간한 불교서적 중 55권의 책에서 40여명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모은 것이다.

석가모니와 달라이라마, 탁났한 스님 등 동서양의 여러 불교 스승들의 글을 모은 이 책에는 금강경독송회 김재용 지도법사의 <다하는 마음 밝은 마음> 중 '나를 깨우쳐 주는 사람은 모두 나의 부처님이다. 부처님을 높고 귀한 곳에서만 찾으려 하지 말고 당신의 마을이나 시장 또는 길에서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People who enlighten me are all my buddhas. Instead of trying to find buddhas in high and precious places, shouldn't you be able to find your buddhas in your town, in your marketplaces, and in your streets?)' 등 12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김 법사의 <다하는 마음 밝은 마음>(Polishing the Diamond) 영문판은 1999년도에 Wisdom출판사에서 나와 서부 아메리카 서점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교서적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판매순위 9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Josh Bartok 엮음.

여수령 기자

진각복지재단 스리랑카 JGO센터 부처님오신날 기념체육대회



◇4월 28일 스리랑카 카타나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기념 체육대회'.

나타나 스님은 4월 28일 스리랑카 네넬보 카타나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센터 졸업생 및 재학생을 비롯해 지역 주민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라톤, 100m 달리기, 줄다리기, 장기자랑, 부모님과 함께 달리기, 과자 따먹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센터 지부장 아팔라마테 와나타나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센터 이용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자유롭게 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센터에서 행하는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i@buddhapia.com

신비의 마이산 탐사

관광을 겸할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 063) 433-2900, 0303
432-0652, 0072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기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